

#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과 중국 정세

(2017년 7월 4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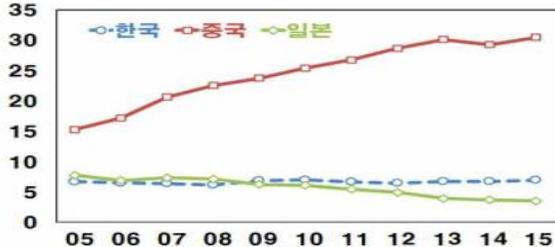


## 시진핑 중국 주석, "금융시장 개방하고 감독은 강화하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6차 회의에서 순차적인 시장개방과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대외개방을 통해 예상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환율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위안화 국제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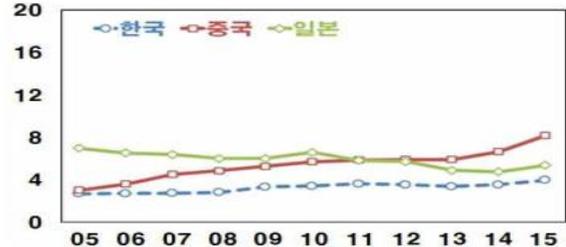
또한 선진국의 관리·감독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중국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국내외 자본에 대한 법률의 통합화도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상위 10개 IT품목<sup>1)</sup> 세계시장 점유율(%)



주: 1) 반도체, 휴대폰, LCD 및 모듈, 통신장비, 가전, 인쇄회로, 컴퓨터 및 부품, 기타기기  
자료: UN Comtrade

상위 10개 非IT품목<sup>1)</sup> 세계시장 점유율(%)



주: 1) 자동차, 선박, 기계, 정밀기기, 철강, 석유제품, 화학품, 고무, 플라스틱, 섬유, 음식료  
자료: UN Comtrade

한중일 세계시장 1위 품목 수

	2003	2007	2011	2015
중국	760(3위)	1,108(1위)	1,417(1위)	1,762(1위)
일본	293(5위)	236(5위)	229(4위)	175(5위)
한국	59(17위)	52(19위)	61(15위)	68(14위)

주: HS 6단위, 5만달러 이상 수출 품목 대상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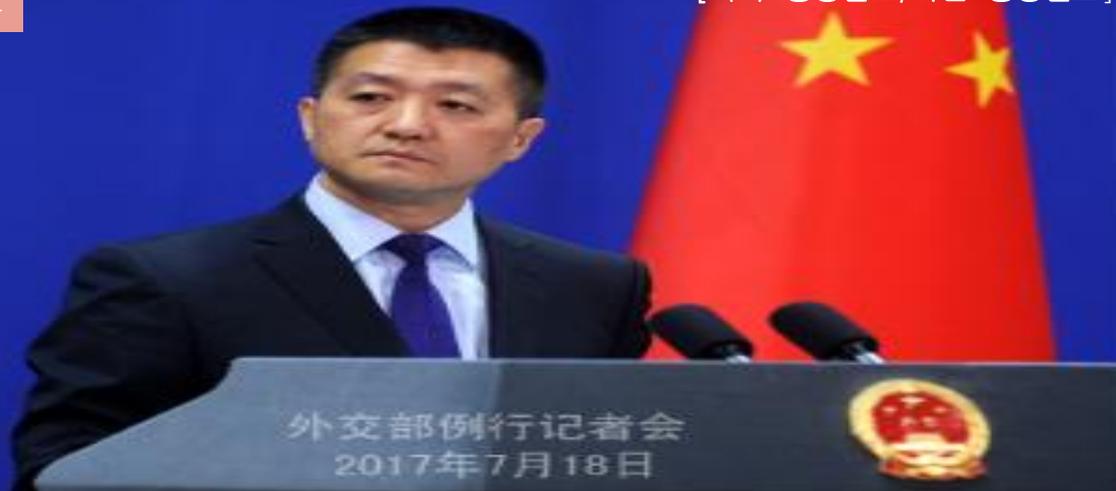
## 한국은행 "기술 경쟁 심화...중국 내수·신사업 공략해야"

한국은행 중국경제팀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산업·무역 부문 구조변화는 향후 한·중 간 경제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중 간 주력 산업이 중첩되고, 산업 기술력 격차 축소 등으로 주요 품목에서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중국의 내수 시장과 신사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당 대회 앞두고 '일방주의 노선' 강화하는 중국

제 19차 공산당 대회를 앞둔 중국이 한국과 대만에 일방적인 여행규제와 같은 경제보복을 장기화하고, 최근 언론통제와 검열을 통해 시진핑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차단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중국 관영매체들 역시 이런 일방적 경제보복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중국의 국력을 강조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 中 외교부 “한반도 문제 미·중 전면경제대화 핵심 주제 아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일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에서 북핵과 대북제재가 양국간 논의 주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경제대화의 핵심은 거시 경제 정책, 무역 협력, 투자 협력,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등 네 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양국 경제협력이 북한 핵 문제로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중국의 대북 무역거래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사전 경고음을 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천민얼(왼쪽 사진) 충칭시 서기와 쑨정차이(오른쪽 사진) 전 서기



규옌둥(왼쪽 사진) 부총리와 쑨춘란 등일선선부장

## 중국 권력구도 요동...당 상무위 '유리천장' 깨질까

시진핑 국가주석의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최고지도부 진입이 유력시되던 쑨정차이(孫政才) 충칭시 서기가 낙마하면서 권력구도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 주석의 최측근인 천민얼(陳敏爾)이 충칭시 서기로 임명되어 향후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강화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또한

10월 말로 예상되는 제19차 공산당대회에서 헌법에 남녀평등을 명시한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걸맞게 여성 상무위원이 선출될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北, 中 압박하는 美 비난... "북중친선 깨트릴 수 없어"

최근 미국에서 중국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지난 21일 북한이 공개적으로 중국 편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노동신문은 중국을 향해서도 미국의 대북제재에 편승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이 같은 중국 편들기는 미·중 갈등을 부채질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 "중국 부자 절반은 해외 이민 원해" - 후룬리포트

지난 17일 공개된 후룬리포트와 비자 컨설팅 그룹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순자산이 150만달러가 넘는 중국의 백만장자 중 절반은 이민을 고려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를 선호했으며 영국과 호주가 그 다음을 차지해 이들 국가 부동산으로 중국 부자들의 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제시됐다고 하는데요. 이민을 떠나는 주요 요인으로 '교육' 과 '생활 환경' 이 꼽혔습니다.



# 百度网盘

随时随地 / 轻松分享 / 安全无忧



初始15G, 可按需扩容



多终端同步 数据随身带



免费无限制外链分享

바이두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바이두왕판.[사진=바이두왕판]

## 내 사진, 문서 아무나 본다? 中 바이두 지나친 정보공개 논란

바이두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바이두왕판'에 올려진 각종 개인정보와 사진, 문건 등이 지나치게 쉽게 유출될 수 있다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설정 후 정보가 너무 쉽게 모든 사람에게 검색되거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업로드 된 정보의 공개 범위, 허용 권한 등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가 낮을 수 있어 무의식적인 정보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